



12

학교법인이 ExitWise를 써야 하는 이유

교육용 자산을 처분할 때, 가장 무거운 건 **공익성**입니다

학교법인의 유휴 자산 처분은 시세보다 ‘공익에 부합하는가’라는 증빙에서 막힙니다. 처분 근거와 공익성 검토를 한 문서로 정리할 때 이사회와 관할청이 함께 움직입니다.

ACT 01	ACT 02	ACT 03	ACT 04
현실 THE REALITY	위기 THE RISK	전환 THE SHIFT	결과 THE RESULT
폐교 부지나 미사용 교육시설은 매각이 늦어질수록 관리비만 쌓입니다. 그러나 처분에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라는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	공익성 증빙이 부실하면 허가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감사에 걸립니다. 절차 하나를 빠뜨린 처분은 법인 전체의 신인도를 흔듭니다.	ExitWise는 공시지가·감정·실거래 데이터로 적정가 근거를 자동 정리합니다. 처분 사유와 자금 활용 계획을 공익성 관점에서 문서화합니다.	이사회 보고서와 관할청 제출 자료가 표준 양식으로 완성됩니다. 투명한 근거가 허가 심사를 매끄럽게 통과시킵니다.

학교법인 맞춤 기능 4가지 CORE CAPABILITIES

 01 관할청 보고 자료 처분 사유·적정가·자금계획을 허가 신청 양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02 공익성 증빙 매각 대금의 교육 목적 활용을 문서로 입증해 심사를 뒷받칩니다.	 03 적정가 산정 공시지가·감정·실거래 데이터로 매각가의 타당성을 제시합니다.	 04 이사회 의결 자료 검토 단계를 기록해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	---	--

허가 심사

반려 → 승인

공익성 증빙 강화

보고 준비

수주 → 하루

제출 양식 자동화

유휴 자산

적체 → 처분

근거 기반 신속 정리

교육 자산의 처분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ExitWise는 그 명분을 ‘감독청이 인정하는 문서’로 만듭니다.

— 학교의 자산은 학교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